

당정 '수출 경쟁력 강화' 금융 지원 63조원으로 확대

수출 돌파구 위해 22조원 추가 공급...공공·민간 협업 재원 마련 은행권 3000억 특례 보증 대출·6000억 우대상품 신설 저리 운영

국회의원과 정부는 10일 기준 수출 금융 규모 41조원에 신규로 22조원을 추가해 총 63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비상이 걸린 우리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민·당·정협의 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원은 새로운 수출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1000억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900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정책금융기관 위주인 수출금융 지원 방식을 민간 금융기관도 수출 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하도록 공공과 민간의 협업 모델로 개편, 수출 금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출 지원 대책은 예산, 정책,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보증 등 공공 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힘을 합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을 1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대차가 해외 전지차 공장을 건설할 때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대차,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이 협력해서 필요한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규모는 최소 3000억원, 금리는 최대 1.5%p(포인트) 인하한 수준으로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또 시중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 6000억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신설해 지원을 병행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출 기업들이 현재의 고금리로 인해 수출환어음 할인율, 신용장 매입 수수료 등이 높아져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수출 기업의 대금 결제 어려움 해소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약 2500여개 우수 수출 중·중견기업의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 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오늘 논의에서 증견기업과 중소기업층에서는 여신(대출) 확대나 금리 문제에 대한 정책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들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마련된 방안들은 지난 5월 열린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던 10개 수출기업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가능하면 그 건의를 많이 수용하는 내용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속한 경기 회복이 아쉬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축인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간 범정부적으로 수출을 지원해 왔지만 수출기업이 느끼는 수출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수출기업들이 수출금리 다변화 지원, 반도체 등 전략사업 추가 지원, 수출입 대금 결제 과정에서 겪는 고금리 문제 지원을 주로 요청했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수출 기업에 대한 이번 맞춤형 대책으로 애로사항이 실효성 있게 해소될 결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수출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와 함께 은행권에서도 적극 참여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국회의힘 박대출(가운데)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미가 있다"며 "은행권에서는 정책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신보·기보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 모두 우대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대형 5대 은행에서 4조 6000억원 규모의 자체 수출 특화 상품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 활동에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은) 수출 기업의 신용장 매입 수수료와 선물환 계약 수수료 등 관련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다"며 "수출 대금을 신속히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환어음 할인율도 낮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에서는 김 금융위원장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등이, 민간 부문에서는 김광수 회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준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재정적자 83조...역대급 세수 부족

상반기 세수, 전년보다 40조 감소...소득세·법인세·부가세 급감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3조원까지 불어나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를 훌쩍 넘어섰다.

총지출도 크게 줄었지만, 역대급 세수부족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40조원 가량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8월호)을 10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8조 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178조 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조 7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 5000억원)의 절반도 못 걷지 않았다.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9조 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은 15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2천억원 감소했다. 기금 수입은 102조 2000억원으로 4조 8000억원 증가했다.

6월까지 총지출은 351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57조 7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총지출이 크게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그만큼 많

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였다.

6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 2000억원)를 25조원 가량 웃돌았다.

다만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가장 심화하는 흐름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18조 9000억원 개선된 수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83조 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 3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49조 9000억원 늘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6조 3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 8000억원)의 69.3%를 기록했다.

7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 6000억원으로 4개월 연속 유입 중이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7월 말 기준 210조 9000억원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이동관 인사청문회' 18일 개최

과방위, 격론 끝 계획서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실시계획서에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일정한 18일에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과방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도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야 간 협의가 이뤄

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하고 회회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시도와 아들 학폭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료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회의에서 "이 후보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한 민원을 들었다고 이야기한 김승우 전 하나고 이사장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실제적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폭넓은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장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회의 개의 직후 장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결의자 야당 의원들은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만 회의장에 남아 장 위원장과 설전을 벌였다.

조 의원은 "의결 전 의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장 위원장은 "의의가 있다는 것을 못 들었다.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 건은 여야 간사 합의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자씨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3	22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3. 9. 11(월) ~ 15(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 일: 2023. 10. 6(금)

· 전형 일: 2024. 1. 19(금)